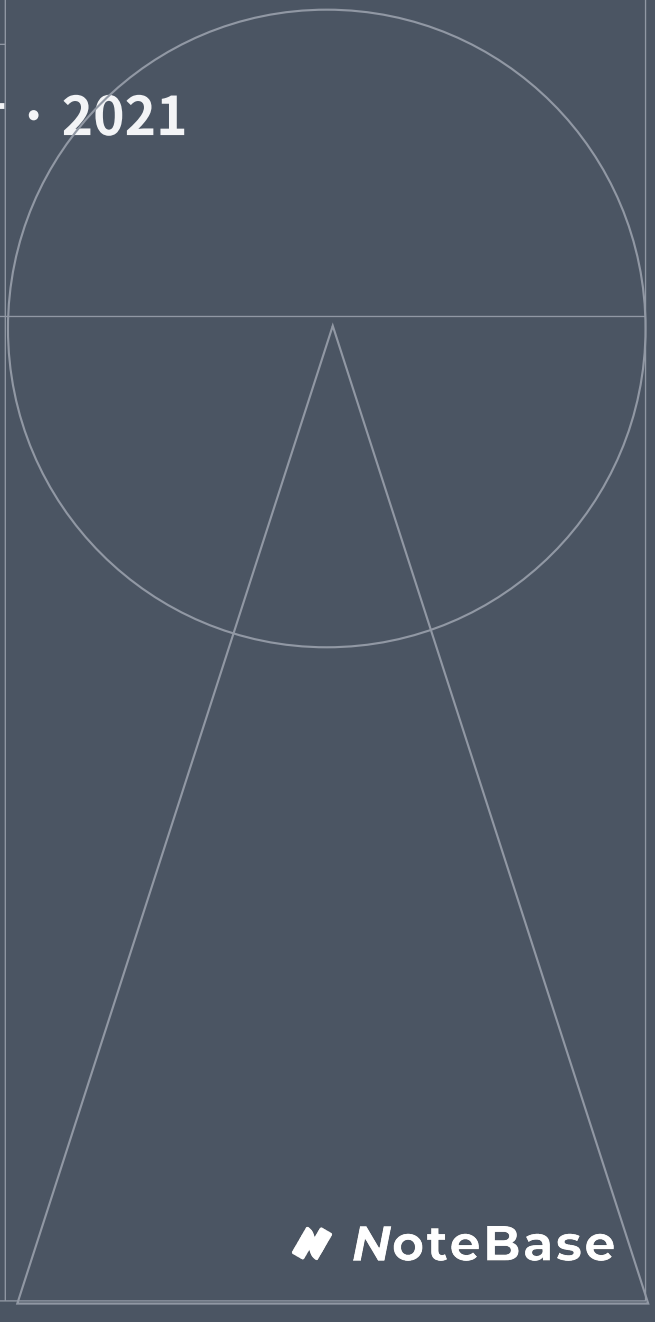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1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1

문 1. 회계정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②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정보는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을 구별하는 데 이용되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③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④ 외부감사는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공급자인 동시에 내부 수요자**이다. 예산 편성이나 원가 관리 등 경영 의사결정에도 회계정보를 이용하므로 '수요자는 아니다'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경영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지만, 자신도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예산 편성·원가 관리 등에 회계정보를 이용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공급자이면서 내부 수요자**이기도 하다. 회계정보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투자자와 채권자는 회계정보로 기업의 수익성,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등을 비교하여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줄 기업을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한정된 자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기업에 배분되도록 돕는다. 회계정보는 이처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③ O: 회계기준은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적용하는 공통된 처리 기준이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회계기준의 준수와 외부감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다만 모든 기업에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④ O: 외부감사는 회계와 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이다. 다만 공인회계사 자격만 있으면 개인이 아무 제한 없이 법정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 외부감사는 **감사인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이나 등록된 감사반**을 통해 수행한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1,200,000에 취득(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하였다. 동 기계장치를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때, 20×4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은 없으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① ₩50,000

② ₩150,000

③ ₩180,000

④ ₩25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20×4년에는 **사용 3차 연도와 4차 연도가 각각 6개월씩** 포함된다. 두 기간의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합하면 150,000원이다.

계산 과정

감가상각대상금액: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200,000 − 200,000 = 1,00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의 상각률: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1 + 2 + 3 + 4 = 1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적용하는 연간 상각률은 사용 1차 연도부터 차례로 $\frac{4}{10}$, $\frac{3}{10}$, $\frac{2}{10}$, $\frac{1}{10}$이다. 이때 사용연도는 **취득일인 7월 1일부터 1년씩** 구분하므로 달력상의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20×4년 1~6월: 20×3년 7월 1일~20×4년 6월 30일은 사용 3차 연도이다. 이 사용연도 전체의 감가상각비는 $1{,}000{,}000 \cdot \frac{2}{10} = 200{,}000$원이다. 그중 20×4년에 속하는 6개월분은 $200{,}000 \cdot \frac{6}{12} = 100{,}000$원이다.

20×4년 7~12월: 20×4년 7월 1일부터는 사용 4차 연도이므로 **상각률이 한 단계 낮아진다**. 이 사용연도 전체의 감가상각비는 $1{,}000{,}000 \cdot \frac{1}{10} = 100{,}000$원이다. 그중 20×4년에 속하는 6개월분은 $100{,}000 \cdot \frac{6}{12} = 50{,}000$원이다.

20×4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는 100,000 + 50,000 = 15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모든 매출이 외상으로 발생하는 회사이다. 당기 총매출액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으로부터 회수한 현금유입액은 ₩600,000이다. 다음의 당기 매출채권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주)한국이 인식할 당기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은?

	기초	기말
매출채권	₩500,000	₩450,000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50,000	₩50,000

① ₩250,000

② ₩350,000

③ ₩450,000

④ ₩55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당기 중 회수불능으로 제거한 매출채권은 250,000원이다. 기초와 기말의 손실충당금이 모두 50,000원으로 같으므로, 제각으로 줄어든 충당금을 보충하는 **당기 손상차손도 25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당기 매출채권 제각액: 모든 매출이 외상이므로 당기 매출액 800,000원은 매출채권을 늘리고, 현금 회수액 600,000원은 매출채권을 줄인다. 기초 매출채권 500,000원에 이 증감을 반영하면 700,000원이지만 실제 기말 잔액은 450,000원이다. 따라서 차액인 500,000 + 800,000 − 600,000 − 450,000 = 250,000원은 **회수불능으로 매출채권에서 제거한 금액**이다. 이를 제각액이라고 한다.

2. 당기 손상차손: 매출채권을 제각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손실충당금도 같은 금액만큼 줄인다. 기초 충당금 50,000원에서 제각액 250,000원을 차감하면 충당금은 200,000원의 차변잔액이 된다.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은 50,000원의 대변잔액이므로, **차변잔액을 없애고 필요한 대변잔액을 설정**하려면 200,000 + 50,000 = 250,000원을 추가로 인식해야 한다. 이 금액이 당기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이다.

따라서 당기 손상차손은 250,0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발행시 사채발행비가 발생한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사채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

②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를 할인발행하게 된다.

③ 사채를 할증발행한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④ 사채의 할인발행과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발행차금상각액이 모두 점차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은 할인발행과 할증발행 모두 **점차 증가한다**. 할인발행은 이자비용이 늘고, 할증발행은 이자비용이 줄면서 일정한 지급이자와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채발행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이에 따라 발행자가 실제로 조달한 순금액은 줄지만, 앞으로 지급할 이자와 만기상환액은 그대로이다. 더 적은 순조달액에 대해 같은 현금을 지급하므로 실질적인 차입원가인 **유효이자율은 높아진다**.

② O: 액면이자율은 액면금액에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정하는 이자율이고, 시장이자율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된 이자만으로는 요구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자와 만기상환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아져** 할인발행한다.

③ O: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할증발행한 사채는 지급이자가 이자비용보다 크며, 그 차액이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이다. 이 상각액만큼 **사채의 장부금액이 감소**하므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액면금액에 접근한다.

④ X: 이자지급액과 유효이자율이 일정한 사채에서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은 할인발행과 할증발행 모두 **점차 증가한다**. 할인발행은 이자비용이 지급이자보다 크고, 그 차액인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장부금액에 가산된다. 따라서 다음 기간의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이 커져 일정한 지급이자와의 차액도 증가한다. 할증발행은 지급이자가 이자비용보다 크고, 그 차액인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이 장부금액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다음 기간의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이 작아져 일정한 지급이자와의 차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년 초에 토지를 새로 구입한 후, 토지 위에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 취득 후 토지 위에 있는 창고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의 취득 후 바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토지 취득 및 신축 공사와 관련된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사옥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 토지의 구입가격 ₩20,000
◯ 토지의 구입에 소요된 부대비용 ₩1,300
◯ 토지 위의 창고 철거비용 ₩900
◯ 새로운 사옥의 설계비 ₩2,000
◯ 기초공사를 위한 땅 굴착비용 ₩500
◯ 건설자재 구입비용 ₩4,000
◯ 건설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150
◯ 건설 근로자 인건비 ₩1,700

① ₩8,200
② ₩8,350
③ ₩9,100
④ ₩9,2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토지 구입가격·취득 부대비용·기존 창고 철거비는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사옥의 설계비·기초 굴착비·자재비·인건비에 **자본화할 차입금이자** 150원을 더하면 건설중인자산은 8,35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건설중인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발생한 원가를 모아 두는 계정이다. 20×1년 12월 31일에도 사옥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옥 건설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를 합산한다. 토지는 사옥과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한다.

토지 원가의 구분: 토지 구입가격 20,000원과 취득 부대비용 1,300원은 토지 원가이다. 새로 구입한 토지를 사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창고를 철거한 비용 900원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20,000 + 1,300 + 900 = 22,200원은 토지로 계상하고, 사옥의 건설중인자산에서 제외한다.

사옥의 직접 건설원가: 설계비 2,000원, 기초공사를 위한 땅 굴착비 500원, 건설자재 구입비 4,000원, 건설 근로자 인건비 1,700원을 합산한다. 굴착비는 토지 자체를 취득하는 지출이 아니라 **사옥의 기초공사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므로 사옥 원가에 포함한다. 이자 반영 전 건설원가는 2,000 + 500 + 4,000 + 1,700 = 8,200원이다.

차입금이자의 반영: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이 사옥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설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자 150원은 **건설기간 중 자본화할 차입원가**이므로 건설중인자산에 더한다.

건설중인자산 계상액은 8,200 + 150 = 8,35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를 20×1년 초 ₩1,000,000에 취득하였다. 20×1년 말 재평가 결과 토지의 공정가치는 ₩900,000이었고, 20×2년 말 재평가 결과 토지의 공정가치가 ₩1,050,000인 경우, 20×2년 말 당기손익에 포함될 자산재평가이익과 자본항목에 표시될 재평가잉여금은?

① 자산재평가이익: ₩0, 재평가잉여금: ₩50,000

② 자산재평가이익: ₩50,000, 재평가잉여금: ₩100,000

③ 자산재평가이익: ₩100,000, 재평가잉여금: ₩50,000

④ 자산재평가이익: ₩150,000, 재평가잉여금: ₩1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토지 가치 상승액 150,000원 중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의 환입액** 100,000원은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처리한다. 이를 초과하는 5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한다.

계산 과정

20×1년 말 재평가손실: 취득원가 1,000,000원보다 공정가치가 900,000원으로 하락했으므로, 재평가손실은 1,000,000 − 900,000 = 100,000원이다.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이 손실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토지 장부금액을 900,000원으로 낮춘다.

20×2년 말 재평가증가액: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900,000원이다. 공정가치가 1,050,000원이 되었으므로 이번 재평가로 증가하는 금액은 1,050,000 − 900,000 = 150,000원이다. 이 금액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누어 인식할 총증가액이다.

자산재평가이익: 재평가증가액 중 **동일 자산에 대해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을 되돌리는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150,000원 중 종전 손실액인 100,000원을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처리한다. 이는 토지 장부금액이 900,000원에서 원래 취득원가인 1,000,000원까지 회복되는 부분이다.

재평가잉여금: 총증가액에서 손실 환입액을 뺀 150,000 − 100,000 = 5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한다. 이 금액은 취득원가를 초과한 가치 상승분이며, 기존 잉여금이 없으므로 20×2년 말 재평가잉여금 잔액도 5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손익에 포함될 자산재평가이익은 100,000원, 자본항목에 표시될 재평가잉여금은 50,000원으로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다음의 분개장 기록 내역 중 시산표 작성을 통해 항상 자동으로 발견되는 오류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계장치를 ₩800,000에 처분하고, '(차)현금 ₩800,000 / (대)기계장치 ₩80,000'으로 분개하였다.
ㄴ. 건물을 ₩600,000에 처분하고, '(차)현금 ₩600,000 / (대)토지 ₩600,000'으로 분개하였다.
ㄷ. 토지를 ₩300,000에 처분하고, '(차)토지 ₩300,000 / (대)현금 ₩300,000'으로 분개하였다.
ㄹ. 신입사원과 월 ₩5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차)급여 ₩500,000 / (대)미지급비용 ₩500,000'으로 분개하였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ㄱ은 차변 ₩800,000과 대변 ₩80,000으로 **금액이 ₩720,000 불일치**하므로 오류가 드러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 금액을 모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표이다. 따라서 차변·대변 금액이 맞지 않는 오류는 발견하지만, 양쪽 금액이 같으면 계정이나 거래 내용이 잘못되어도 시산표만으로는 자동으로 발견하지 못한다.

ㄱ. 차변·대변 금액 불일치: 차변 현금은 ₩800,000, 대변 기계장치는 ₩80,000이므로 차변이 ₩720,000 더 크다. 이 분개를 전기하면 시산표에도 **차변·대변 합계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자동으로 발견된다.

ㄴ. 계정과목 오류: 건물을 처분했으므로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감소**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차변 현금과 대변 토지가 모두 ₩600,000이어서 차변·대변 합계는 일치하므로 시산표만으로는 자동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ㄷ. 차변·대변 반대 기록: 토지를 처분하면 현금이 증가하고 토지가 감소하므로 **현금은 차변, 토지는 대변**에 기록해야 한다. 제시된 분개는 이를 반대로 기록했지만 양쪽 금액이 모두 ₩300,000이므로 시산표만으로는 자동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ㄹ. 회계거래가 아닌 계약의 기록: **고용계약 체결만으로는** 아직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급여와 미지급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근로를 제공받아 급여가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을 때 급여와 미지급비용을 기록한다. 제시된 분개는 인식 시점이 잘못되었지만 차변·대변이 모두 ₩500,000이므로 시산표만으로는 자동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시산표 작성으로 항상 자동 발견되는 오류는 ㄱ뿐이며, 이는 ①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의 수정후시산표상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본금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초이익잉여금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매출	₩120,000	현금	₩130,000
매출원가	₩100,000	재고자산	₩200,000
급여	₩50,000	매입채무	₩170,000
선급비용	₩70,000	미지급금	₩50,000
미지급비용	₩80,000	미수수익	₩50,000
자본금	₩40,000	기초이익잉여금	?

① ₩40,000

② ₩110,000

③ ₩140,000

④ ₩3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초이익잉여금은 수정후시산표의 **차변 합계와 이미 알려진 대변 합계의 차액**으로 구한다. 자산·비용 합계 600,000원에서 부채·자본금·수익 합계 460,000원을 빼면 14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정후시산표는 결산수정분개를 반영하되 **수익·비용을 마감하기 전**의 시산표이다. 따라서 당기 수익과 비용이 별도 계정으로 남아 있다.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 대변에는 부채·자본금·기초이익잉여금·수익을 놓고 양쪽 합계를 일치시킨다.

자산: 현금 130,000원, 재고자산 200,000원, 선급비용 70,000원, 미수수익 50,000원으로 합계 450,000원이다. 선급비용은 아직 제공받지 않은 용역 등에 대해 미리 지급한 금액이고, 미수수익은 수익이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둘 다 자산**에 포함한다.

부채: 매입채무 170,000원, 미지급금 50,000원, 미지급비용 80,000원으로 합계 300,000원이다.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부채**에 포함한다.

수익과 비용: 수익은 매출 120,000원이고, 비용은 매출원가 100,000원과 급여 50,000원을 합한 150,000원이다. 수정후시산표에 제시된 미지급비용 80,000원은 부채 계정 잔액이므로 비용 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차변·대변 합계: 차변 합계는 자산 450,000원 + 비용 150,000원 = 600,000원이다. 기초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대변 합계는 부채 300,000원 + 자본금 40,000원 + 수익 120,000원 = 460,000원이다.

기초이익잉여금: 양쪽 합계를 같게 하는 대변 잔액은 600,000 − 460,000 = 140,000원이다. 따라서 기초이익잉여금은 14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의 재고자산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홍수로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 20×1년 1월 1일 기초상품재고액은 ₩250,000이다.
◯ 20×1년 7월 31일 홍수가 발생하여 ₩150,000의 상품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다.
◯ 20×1년 7월 31일까지 당기상품매입액은 ₩1,300,000이다.
◯ 20×1년 7월 31일까지 당기매출액은 ₩1,200,000이다.
◯ (주)한국의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① ₩200,000
② ₩260,000
③ ₩440,000
④ ₩59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80%**로 추정한다. 이를 이용해 구한 홍수 직전 재고원가 590,000원에서 남은 상품원가 150,000원을 빼면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440,000원이다.

계산 과정

판매가능상품원가: 기초상품재고액에 20×1년 7월 31일까지의 상품매입액을 더하면 해당 기간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총원가가 된다. 판매가능상품원가는 250,000원 + 1,300,000원 = 1,550,000원이다.

추정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출액은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으로 나뉘므로, 매출원가율은 100% − 20% = 80%이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판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1,200,000원 × 80% = 960,000원이다.

홍수 직전 재고원가: 판매가능상품원가에서 이미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빼면 홍수 직전에 남아 있었을 재고의 원가가 된다. 홍수 직전 추정 재고원가는 1,550,000원 − 960,000원 = 590,000원이다.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 홍수 직전 재고에는 소실된 상품과 남은 상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실되지 않은 상품원가를 한 번 더 차감**한다.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590,000원 − 150,000원 = 44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자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누적적 적립금의 성격을 갖는 계정이다.

② 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③ 자본잉여금은 납입된 자본 중에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일부는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본조정은 '누적적 적립금'이 아니라 **자본의 가감 성격을 별도로 표시하는 조정 항목**이다. 자본을 차감하는 항목뿐 아니라 가산하는 항목도 포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와 관련되지만 최종 납입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 때문에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을 별도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누적적 적립금의 성격으로 설명할 수 없고**, 차감 항목으로만 한정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지만, 미교부주식배당금은 가산 항목이다.

② O: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하면 발행자가 현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발행자에게 **상환을 회피할 수 없는 계약상 의무**가 생긴다. 금융상품은 주식이라는 법적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므로, 이러한 상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③ O: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예를 들어 액면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액면금액은 자본금으로, 이를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감자차익이나 자기주식처분이익도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영업활동 등에서 얻은 이익을 유보한 이익잉여금과 구별된다.

④ O: 재분류조정은 과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이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에는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 안에서 직접 대체**할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이 대체는 자본 항목 사이의 이동이므로 그 자체로 당기손익이나 자본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한다.

③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부채로 표시한다.

정답 4번

①

국채의 평가액은 **발행가액에서 발행수수료와 발행에 직접 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① 국채 및 공채(이하 "국채등"이라 한다)는 국채등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7.31>

②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①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부채가 아니라 **해당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주)한국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원가자료이다.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28,0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40,0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60,000
◯ 월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

(주)한국의 제품 단위당 기초(기본)원가와 단위당 가공(전환)원가는? (단,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월간 총생산량 20단위를 기초로 한 것이다)

① 단위당 기초(기본)원가: ₩68,000, 단위당 가공(전환)원가: ₩110,000
② 단위당 기초(기본)원가: ₩68,000, 단위당 가공(전환)원가: ₩128,000
③ 단위당 기초(기본)원가: ₩110,000, 단위당 가공(전환)원가: ₩68,000
④ 단위당 기초(기본)원가: ₩128,000, 단위당 가공(전환)원가: ₩68,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초(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로 단위당 68,000원이다. 가공(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므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원까지 포함하여 110,000원이다.

계산 과정

단위당 기초(기본)원가: 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두 금액 모두 단위당 자료이므로 그대로 더하면 28,000 + 40,000 = 68,000원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원은 월간 총액이므로 **월간 총생산량 20단위로 나누어** 제품 한 단위에 배분되는 금액을 구한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frac{200,000}{20} = 10,000$원이다.

단위당 가공(전환)원가: 직접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드는 원가로,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다. 제조간접원가는 **변동분과 고정분을 모두 포함**하므로, 단위당 가공원가는 40,000 + 60,000 + 10,000 = 110,000원이다.

단위당 기초원가 68,000원과 단위당 가공원가 110,000원의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정상(예정)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며,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1년 예정기계시간이 10,000시간이고 원가 예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항목	금액
직접재료원가	₩25,000
간접재료원가	₩5,000
직접노무원가	₩32,000
공장건물 임차료	₩20,000
공장설비 감가상각비	₩7,000
판매직원 급여	₩18,000
공장설비 보험료	₩13,000
광고선전비	₩5,000

① ₩4/기계시간

② ₩4.5/기계시간

③ ₩7.2/기계시간

④ ₩10.2/기계시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예정배부율의 분자에는 직접원가나 판매비를 제외한 **제조간접원가 예산 45,000원**만 포함한다. 이를 예정기계시간 10,000시간으로 나누면 기계시간당 4.5원을 배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조간접원가 예산 집계
제조간접원가는 제품 제조에 들지만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하기 어려워 배부하는 원가이다. 표에서 간접재료원가 5,000원, 공장건물 임차료 20,000원, 공장설비 감가상각비 7,000원, 공장설비 보험료 13,000원이 해당한다. 따라서 **배부 대상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000 + 20,000 + 7,000 + 13,000 = 45,000원이다.

2. 배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
직접재료원가 25,000원과 직접노무원가 32,000원은 제품에 직접 부과하는 원가이므로 제조간접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직원 급여 18,000원과 광고선전비 5,000원은 **제조활동이 아닌 판매활동의 비용**이므로 역시 제외한다.

3. 예정배부율 계산
정상(예정)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미리 정한 배부율로 배부한다. 기계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므로,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같은 기간의 예정기계시간**으로 나누어 기계시간당 배부액을 구한다. 20×1년 예정기계시간은 10,000시간이므로 예정배부율은 45,000원10,000시간=4.5원/기계시간이다. 이는 기계를 1시간 사용할 때 제조간접원가 4.5원을 배부한다는 뜻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주)한국과 관련된 거래이다. 기말 수정분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8월 1일 건물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현금 ₩2,400을 수취하면서 임대수익으로 기록하였다.
◯ 10월 1일 거래처에 현금 ₩10,000을 대여하고, 1년 후 원금과 이자(연 이자율 4%)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 11월 1일 보험료 2년분 ₩2,400을 현금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① 자산이 ₩2,100만큼 증가한다.
② 비용이 ₩200만큼 증가한다.
③ 수익이 ₩100만큼 증가한다.
④ 당기순이익이 ₩900만큼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말 수정으로 임대수익은 1,400원 감소하고 이자수익은 100원 증가하므로, 수익은 총 1,300원 감소한다. 아직 보장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험료 2,200원은 비용에서 제외하므로, **비용 감소액이 수익 감소액보다 900원 커서** 당기순이익은 900원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기말 수정분개는 현금의 수취·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는 절차이다. 기말을 12월 31일로 보아 월할 계산하고, 수정 전 기록과 비교한 재무제표 항목의 변동을 판단한다.

① X: 수정분개로 늘어나는 자산은 **미수수익 100원과 선급보험료 2,200원**이므로, 자산 증가액은 100 + 2,200 = 2,300원이다. 대여금 이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 발생하였으므로 $10{,}000 \cdot 0.04 \cdot \frac{3}{12} = 100$원이다. 이자는 다음 해에 받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임대료와 보험료의 현금 수취·지급은 이미 기록되었으므로 수정분개에서 현금을 다시 증감시키지 않는다.

② X: 보험료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200원 감소**한다. 11월 1일 지급한 2년분 보험료 2,400원 중 연말까지 보장기간이 지난 부분은 2개월분이므로, 당기 보험료는 $2{,}400 \cdot \frac{2}{24} = 200$원이다. 이미 2,400원 전액을 비용으로 기록했으므로, 나머지 2,400 − 200 = 2,200원을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돌린다. 200원은 수정 후 비용 잔액이며, 수정분개로 증가하는 비용이 아니다.

③ X: 이자수익만 보면 100원 증가하지만, 임대수익의 수정도 반영하면 **수익은 총 1,300원 감소**한다.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임대한 기간은 5개월이므로 당기 임대수익은 $2{,}400 \cdot \frac{5}{12} = 1{,}000$원이다. 이미 2,400원을 전액 수익으로 기록했으므로, 아직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은 1,400원을 임대수익에서 차감하고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전체 수익의 변동은 −1,400 + 100 = −1,300원이다.

④ O: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수정분개에 따른 순이익 변동은 수익 변동에서 비용 변동을 빼서 구한다. 수익은 1,300원 감소하고 비용은 2,200원 감소하므로, 순이익 변동은 −1,300 − (−2,200) = 900원이다. **비용의 감소는 순이익을 증가**시키므로 당기순이익이 900원 증가한다.

NoteBase

문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재무제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회계기준으로 삼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과거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변경되었다.

④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평가 적용이 확대되었다.

정답 2번

①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므로, 개별기업별 재무제표만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NoteBase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은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상장회사·상장예정회사와 은행·보험회사 등 법령에 열거된 회사이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개별 거래의 처리방법을 세세하게 정하기보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원칙중심**의 기준이다.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기업의 상황에 따른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가치 변동을 재무정보에 반영하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지금까지 현금기준에 의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발생기준에 의해 작성하고자 한다. 현금기준에 의한 20×1년의 수익은 ₩500,000이다. 20×1년의 기초 매출채권은 ₩30,000, 기말 매출채권은 ₩60,000, 기말 선수수익은 ₩20,000인 경우 발생기준에 의한 20×1년의 수익은?

① ₩490,000

② ₩500,000

③ ₩510,000

④ ₩52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현금기준 수익에 **매출채권 증가액 30,000원을 더하고**, 아직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은 **기말 선수수익 20,000원을 뺀다**. 발생기준 수익은 현금기준보다 10,000원 많은 510,000원이다.

계산 과정

현금기준은 현금을 받은 때 수익을 인식하고, 발생기준은 **현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현금기준 수익 500,000원에서 수익의 발생 시기와 현금 수취 시기가 다른 항목을 조정한다. 제시되지 않은 기초 선수수익 등 다른 조정항목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매출채권 조정: 기초 매출채권 30,000원은 전기에 이미 발생한 수익이므로 빼고, 기말 매출채권 60,000원은 수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더한다. 순조정액은 60,000 − 30,000 = 30,000원으로, **매출채권 증가액만큼 현금기준 수익에 가산**한다. 선수수익 조정 전 금액은 500,000 + 30,000 = 530,000원이다.

2. 선수수익 조정: 기말 선수수익 20,000원은 현금은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다. 현금기준 수익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당기 발생기준 수익에서는 제외하므로 20,000원을 뺀다.

3. 발생기준 수익 계산: 500,000 − 30,000 + 60,000 − 20,000 = 510,000원이다. 이는 ③의 51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기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데, (주)한국의 20×1년 4월의 생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손품의 검사는 공정의 50%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허용하고 있을 때 비정상공손 수량은?

○ 기초재공품 100,000개 (완성도 60%)	○ 당기착수량 800,000개
○ 당기완성량 600,000개	○ 기말재공품 200,000개 (완성도 80%)

① 10,000개
② 30,000개
③ 60,000개
④ 70,000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상공손의 기준은 **당기에 새로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이다. 기초재공품은 전기에 이미 검사시점을 지났고 기말재공품은 당기에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기준 수량은 700,000개이다. 이 수량의 10%인 정상공손 70,000개를 실제 공손 100,000개에서 빼면 비정상공손은 30,000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실제 공손 수량: 기초재공품과 당기착수량의 합계는 완성품, 기말재공품, 공손품으로 나뉜다. 따라서 실제 공손 수량은 100,000 + 800,000 − 600,000 − 200,000 = 100,000개이다.

2. 당기 검사 통과 합격품 수량: 검사시점은 공정의 50%이다. 기초재공품 100,000개는 완성도가 60%이므로 전기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물량이 먼저 완성되므로 당기완성량 600,000개에서 제외한다. 반면 기말재공품 200,000개는 완성도가 80%로 당기에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포함한다. 따라서 **당기에 새로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은 600,000 − 100,000 + 200,000 = 700,000개이다.

3. 정상공손 수량: 허용률 10%는 공손품 자체가 아니라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 수량**에 적용한다. 정상공손 수량은 700,000 × 10% = 70,000개이다.

4. 비정상공손 수량: 실제 공손 중 정상적으로 허용되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이 비정상공손이다. 따라서 100,000 − 70,000 = 30,000개이며, ②의 30,000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기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50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2,000,000이다. (주)한국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구하기 위한 기준조업도는 1,000기계시간이며, 당기 실제 기계시간은 800시간이었다.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가 ₩75,000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① ₩250,000 유리한 차이

② ₩250,000 불리한 차이

③ ₩500,000 유리한 차이

④ ₩500,000 불리한 차이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불리한 능률차이로부터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기계시간은 750시간으로 계산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이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예산액 2,000,000원보다 배부액이 500,000원 적어 **불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한다.

계산 과정

1. 시간당 배부율: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기준조업도 1,000기계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배부율을 구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frac{1,500,000}{1,000} = 1,500$원/시간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frac{2,000,000}{1,000} = 2,000$원/시간이다.

2. 실제 생산량의 표준기계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시간의 차이에 시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곱한 금액이다. 75,000원의 **불리한 능률차이**는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초과 사용시간은 $\frac{75,000}{1,500} = 50$시간이므로, 표준기계시간은 $800 - 50 = 750$시간이다.

3.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과 실제 생산량에 배부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이다. 배부에는 실제 사용시간 800시간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의 표준시간 750시간**을 적용한다. 따라서 배부액은 $750 \times 2,000 = 1,500,000$원이고, 조업도차이는 $2,000,000 - 1,500,000 = 500,000$원이다. 기준조업도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예산액만큼 배부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차이이며, ④의 500,000원 불리한 차이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률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③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④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4번

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까지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 ·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도시철도·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하는 경우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하지 않은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NoteBase

④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회계연도 말에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금 지급액**으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①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NoteBase

문 20.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은 ₩3,000,000이고, 기초재고자산은 ₩100,000이었다. 20×1년 말 유동부채는 ₩100,000, 유동비율은 400%, 당좌비율은 100%이다. 또한,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이 36일이라면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은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년은 360일로 계산한다)

① ₩0

② ₩500,000

③ ₩1,000,000

④ ₩2,0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36일은 연간 **10회전**을 뜻한다. 평균재고자산 200,000원에 10회를 곱한 매출원가는 2,000,000원이므로, 매출총이익은 3,000,000 − 2,000,000 = 1,0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기말재고자산 계산: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고,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기말 유동자산은 100,000 × 400% = 400,000원, 당좌자산은 100,000 × 100% = 100,000원이다.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뺀 금액이 재고자산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400,000 − 100,000 = 300,000원이다.

2. 평균재고자산 계산: 연간 매출원가와 대응시킬 재고자산은 기말 금액만이 아니라 **기초와 기말 금액의 평균**을 사용한다. 평균재고자산은 $\frac{100,000 + 300,000}{2} = 200,000$원이다.

3. 재고자산회전율 계산: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은 재고자산이 판매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이다. 문제에서 1년을 360일로 정했으므로, 재고자산회전율은 $\frac{360}{36} = 10$회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보유한 재고자산의 10배에 해당하는 원가가 1년 동안 매출원가로 처리되었다는 뜻이다.

4. 매출원가 계산: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재고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므로 회전율 계산에는 **매출액이 아닌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평균재고자산 × 재고자산회전율 = 200,000 × 10 = 2,000,000원이다.

5. 매출총이익 계산: 매출총이익은 상품을 판매한 매출액에서 그 상품의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3,000,000 − 2,000,000 = 1,00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